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조운호 요셉 (1848-1866)

아버지 조화서와 함께 순교한 조운호는 충청도 신창에서 태중 교우로 태어났다. 1864년 아버지를 따라 전주 지역의 교우촌인 성지동으로 이사한 그는 교우 이 루치아와 혼인하였다.

1866년 12월 5일, 조운호는 아버지 조화서, 정원지, 이명서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리고 전주 감영에서 심문과 형벌을 예닐곱 차례 받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조운호는 아버지가 순교하고 열흘 지난 12월 23일, 전주 숲정사에서 곤장 16대를 맞은 뒤 참수형을 받아 19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이렇게 할아버지 조 안드레아, 아버지 조화서 베드로와 함께 그 역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3대가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다.



성화_장윤영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5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이사 6,1-2 7,3-8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 2,2 7과 3,4-5,7 8-8(◎ 1ㄷ)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들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섰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1코린 15,1-11 (또는 15,3-8.11)

복음 환호송

마태 4,1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복음

루카 5,1-11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새 사제 인사 | 김문식 마티아 신부



찬미 예수님. 이번 서품식을 통해 사제로 서품받은 김문식 마티아 신부입니다.

제가 사제로 첫발을 내디디면서 선택한 성구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입니다.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제가 만난 하느님께서 바로 사랑 자체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늘 은총으로 삶을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이 은총과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

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을 제 힘만으로

살고, 하느님은 그저 힘을 조금 보태주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치 징검다리처럼 놓아 주시어 저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받쳐주던 말씀의 돌들이 마침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구절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모든 은총이 당신의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하느님 당신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안에 신비로이 담겨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분 부르심에 응답하여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제로서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돕는, 그래서 주님께서 향하시는 곳에 늘 함께하는 그런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



새 사제 인사 | 강석현 라파엘 신부



찬미 예수님. 이번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사제품을 받은 강석현 라파엘 신부입니다.

제가 사제의 삶을 준비하면서 늘 지니려고 노력했던 건 사랑입니다. 사랑 덕분에 부족한 제 모습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고, 저를 도구 삼아 당신 사랑을 전하시려는 하느님께 늘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면

서 정하게 된 서품 성구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루카 10,23)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일꾼들

을 파견하실 때, ‘지혜롭다는 자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성체를 통해 사랑 자체이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제게 주님을 보는 눈과, 사랑이 피어나는 교회 공동체를 보는 눈이 곧 행복이란 걸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느님의 사제로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울 수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딛는 마지막 한 걸음까지 주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도움을 청합니다. ☪



새 사제 인사 | 김영훈 히지노 신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제품을 받은 김영훈 히지노 신부입니다.

사제품을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말씀을 서품 성구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좋은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아쉬움이 남을 거라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심 끝에 정한 서품 성구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1코린 13,2)**입니다.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사제로 살아가며 무엇

보다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제직은 그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제의 삶은 매일 충실하게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일에 애쓰기보다 오직 사랑함과 사랑받음에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저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쓰실 작은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진솔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감히 교우분들께 기도를 청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교우분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



새 사제 인사 | 함현호 다니엘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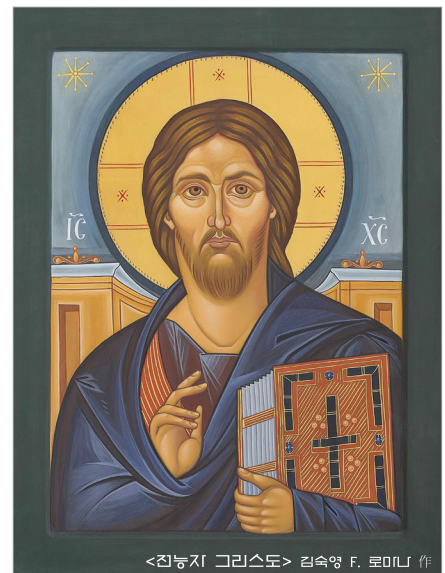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지난 2월 5일에 사제품을 받은 함현호 다니엘 새 신부입니다.

저는 사제 성소의 꿈을 품었던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입학 준비하던 재수생 시절까지 솔직히 폼나고 멋진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학교에 입학해 보니 신학생으로 사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살았다기보다 ‘살아냈다’라는 게 정확할 거 같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죄와 유혹은 왜 늘 계속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제직을 향한 여

정에서 부족한 저 자신을 바라보며 죄와 싸우는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셨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강렬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체험은 서품 성구를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서품 성구는 최민순 신부님이 번역하신 시편 구절,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엎어져 있사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도로 살려주소서.”(시편 119,25)**입니다. 주님 앞에 한낱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좋으신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청하며 그분께 끊임없이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성구를 선택하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힘입어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제로 살겠습니다. ☸



<진동지 그리스도> 김숙영 F. 로미오 作

새 사제 인사 | 박재형 도미니코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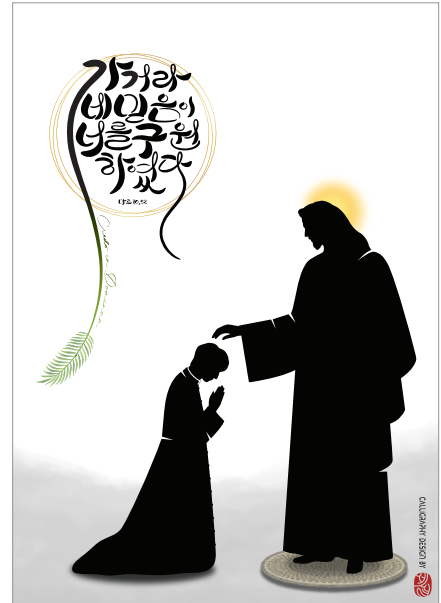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사제품을 받은 박재형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제 서품 성구는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 10,52)**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리코의 눈먼 이를 치유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주님의 부르심을 뺀 제 삶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술한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제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며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는 이렇게 부족한 저를 기꺼이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파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저의 부족함보다 훨씬 크기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 삶의 중심이 믿음과 은총과 부르심에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제 서품 성구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면서 믿음, 은총,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작은 종이자 도구라는 제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품에 안고 겸손한 사제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교회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직접 누리고 증언하며 전하는 사제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새 부제



심재민 세례자요한
법원리 성당



이학주 대건안드레아
후곡 성당



박준형 프란치스코
마두동 성당



홍요한 사도요한
중산 성당



김부영 사도요한
금촌2동 성당



박승준 요셉
청학 성당

새 신부님들과 새 부제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 소식

교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새사제 첫미사

일시 2/14(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청소년 오케스트라 피델리스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트럼펫

일시 2/9(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 (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 (자유곡) 문의 010-8419-0073

청소년 오케스트라 피델리스 제14회 정기연주회

일시 2/15(토) 19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하이든홀

신청 무료 문의 010-8419-0073

신청 ▶



[전시] 김진욱 개인展 - 은둔과 치유

일시 2/15(토)~28(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의정부교구 제146차 ME 주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8).

날짜 2/21(금)~23(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 주말분과 대표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2/23(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대강당

주례 김종민 F.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 루시아

2025 DMZ 평화의 길

날짜 3/15(토)~16(주일) [1박], 3/28(금)~30(주일) [2박]

4/25(금)~27(주일) [2박], 5/16(금)~18(주일) [2박]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차수별 40명 선착순) 회비 [1박] 8만원, [2박] 15만원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제16기 의정부교구 도시농부학교

기간 3/15~10/18, 토요일 [월2회] 장소 박달산 텃밭 (파주시 광탄면)

회비 17만원 (실습밭 분양비 포함) 인원 25명 (선착순)

접수 3/14(금)까지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전신자 성경 읽기 2/9(주일)~15(토) : 요한 5,1-18



2/22(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제33차 세계 병자의 날 교황 담화

제33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강사: 2/11 배광하 신부, 2/25 이상기 가브리엘
문의: 010-5514-4077 회장

야곱 전국 성지순례 및 피정

피아골 소록도 피정: 3/25(월)~27(목)
제주교구: 4/7(월)~11(금)
대전교구: 3/14(금)~15(토)
문의: 010-3712-8119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눈꽃산행: 2/22(토)~24(월)
추라도포함: 3/1(토)~4(화), 3/9(주일)~12(수),
4/12(토)~15(화)
생태순례: 3/17(월)~19(수), 3/22(토)~24(월),
3/28(금)~30(주일)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2/22(토) 14시 ~ 23(주일) 14시
장소: 초정 성령회관
강사: 김완식 요셉 외 유명 강사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서투: 조치원역 12:20 출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2:40 출발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2/14(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찬양과 치유 기도회
문의: 010-2127-0032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매달 13일 파티마 성모님 발현 피정 및 미사: 2/13(목)
매달 첫토요 성모신심 피정 및 미사: 3/1(토)
매주 목요일 기도 피정: 이한택 주교
시간: 10시~14시 미사
문의: 031-952-6324 파티마 평화의 성당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 피정

일시: 4/17(목) 16시 ~ 20(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상센터
회비: 35만원 (접수 후 입금)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ICPE선교회 Jesus 시그널 피정 - 6차

날짜: 3/14(금)~16(주일), 한남동 곧뎌알수도회
대상: 가톨릭 미혼청년 (만 35~45세)
문의: 010-5320-0419, ICPE카톡플친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눈꽃산행: 2/25(화)~27(목)
자연순례: 3/1(토)~3(월), 3/8(토)~10(월),
3/18(화)~20(목), 3/29(토)~31(월)
추라도포함: 3/13(목)~16(주일)
접수: 064-796-4182, 02-773-1455



교육 · 모집 ▶▶

이주사목위원회 파주 EXODUS 직원 모집

영어권 이주민 관련 업무 (상담, 통역)
인원: 1명
자격: 영어사용, 영문서 작성, 운전면허 소지
접수: 2/13(목)까지
문의: 031-948-8105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교구소식 참조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
문의: 031-820-7003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 소정의 수고료 지급 (채용시 마감)

성주간 전례음악 특강

일시: 2/15(토) 10시~12시
대상: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강사: 이호중 라파엘 교수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음악원 (신촌)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청 행사,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반(10주): 3/8~5/17,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300시간): 3/8~11/1, 매주(토) 09시~18시
장소: 신앙교육원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문의: 031-874-6272, <http://cafe.daum.net>

예수회 센터 봄학기 현장 및 비대면 강좌 - 3월 개강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현장: 매주(화) 14~16시
발타사르와 슈파이어의 공동사명, 현장: 매주(수) 14~16시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13주 과정
현장강좌: 수요일, 금요일 10시~12:30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9:30~10시
(금요일은 20~30대 청년대상)

영성과 철학상담, 비대면 실시간: 매주(화) 19시~21시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kr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2/28(금)까지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중미사 성가단원 정기 모집

연습: 매주(목) 20시, (주일) 교중미사 전
대상: 의정부교구에 교적을 둔 만 60세 미만 교우
오디션: 성가 1곡
문의: 010-6802-8014 모니카성가대 단장

재속프란치스코회 의정부지구 지원자 모집

16세 이상의 건진성사를 받은 가톨릭신자이며,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발자취를 따르고자 희망하는 분
접수: 2/28(금)까지
문의: 010-2369-4574 양성담당
010-3207-2525 지구봉사자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15(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성소자 꿈나무 청소년,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도록 돕는 프로그램
날짜: 3/17(월)~26(수), 4/21(월)~30(수),
5/12(월)~21(수), 6/9(월)~18(수)
장소: 강원도 홍천 / 대상: 60세 이상
회비: 100만원 (10일) / 문의: 010-7451-9707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전화: 02-2274-1843~4, www.cdcc.co.kr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교리학과 (주간, 주5일)·종교학과 (야간, 주4일):
2년 과정,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세례 3년 이상 건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과정 (주간, 주3일): 1년 과정,
본원 졸업생(통신과정 포함) 및 준한 과정 이수자
접수: 2/11(화)까지
문의: 02-747-8501
※ 15명 미만 지원 학과는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자수 매일미사 커버(소) 만들기

일시: 2/12(수), 19(수) 14시~16시 [총2회]
장소: 의정부 바오로딸 서원
회비: 4만5천 원 (재료비 포함)
문의: 031-875-7004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활동운영팀)
접수: 2/16(주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별내 성당 사무장·사무원 모집

자격: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인 교육,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 엑셀, PPT) 가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접수: 2/28(금)까지, 개별 통보 및 면접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 121 별내 성당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내 · 기타 ▶▶****살레시오회 교육관 대관 안내**

내용 : 세미나, 연수, 피정, 교육 가능
문의: 02-828-3522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채용 (경력)

분야: 영상PD, 라디오PD, 편집기자, 기자,
OTT운영, 카메라, 아카이브, 인사
서류접수: 2/9(주일)까지
문의: 02-2270-2225

※ 자세한 사항은 cpbc.co.kr-입사지원 페이지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4/7(월)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아시아나)
4/21(월) 특선 이탈리아 (11일, 499만원, 대한항공)
4/23(수) 프랑스 성모성지 (12일, 545만원, 아시아나)
4/28(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39만원)
5/9(금)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5/12(월)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13일, 47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8(화) 일본 나가사키 (4일, 135만원)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6/3(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7/4(금) 성모님 발현성지 4개국 (12일, 560만원)
9/4(목) 발틱 3국 (9일, 4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성지순례

3/24(월)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동반자 할인, 500만원)
4/22(화), 5/13(화) 이탈리아 (11일, 동반자 할인, 415만원)
5/3(토) 체코, 폴란드, 발칸, 메추고리에 (15일, 575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1025만원)
5/20(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25만원)
6/5(목) 올트레아 로마 세계대회 참가단 (12일, 550만원)
문의: 010-3866-2533 가톨릭회관 619호

천주교의정부교구**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모임****예비신학생 첫 모임**

일시: 2/16(주일) 10시~12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
대상: (예비)중1 ~ 고3 및 일반

성서**월간성서 <2월호>**

주제: 성부 하느님_하느님의 호칭
일정: 2/6(목), 13(목), 20(목) [총 3회 업로드]
강사: 최승정 신부 (서울대교구,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
로마 교황청립 성서대학)



성찬 전례 (Liturgia eucharistica)

성찬 전례는 미사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 전례’ 역시 미사의 본질적 요소지만, 미사에만 말씀 전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다른 예식에도 말씀 전례 또는 이와 비슷한 예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 전례만이 지니는 고유한 특징은 성찬 전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 전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전에 “신자들의 미사” 또는 “봉헌미사”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신자들의 미사”라는 말은 말씀 전례가 끝나면 세례받지 않은 예비 신자들이 돌아가고 오직 신자들만 남아서 이 전례를 거행하였기에 붙은 명칭입니다. 또한 “봉헌미사”라는 말은 성찬 전례가 교우들의 예물 ‘봉헌’에서 시작하고 감사기도에서 십자가 제사가 재현되면서 참된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봉헌’되시기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칭이 성찬 전례의 의미와 내용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 특성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례 예식서에서는 초 세기의 명칭을 따라 “성찬 전례” 또는 라틴어를 그대로 옮긴 “감사 전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이를 통해 십자가의 제사가 교회 안에서 언제나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사제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스스로 행하셨고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신 바를 재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① 빵과 잔을 들고 ② 감사를 드리신 다음, ③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에 따라, 성찬 전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① 빵과 잔을 들다 (예물 준비) :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손에 드셨던 빵과 포도주와 물을 제단으로 가져가 봉헌하고, 사제는 이를 받아 제대 위에 놓으며 성찬례를 준비합니다.
- ② 감사를 드린다 (감사기도) : 사제는 공동체를 대표해 감사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의 모든 구원 업적을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때,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성부께 봉헌됩니다.
- ③ 나누어 주다 (영성체 예식) :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듯이,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배령(拜領)합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고, 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공동체 모두는 하나의 친교를 이룹니다. ☪

